

F1 출신 이데 유지, '6000클래스' 트로피 번쩍

(엑스타레이싱팀)



2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열린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캐딜락 6000 클래스 스타트 장면.

사진제공 | CJ슈퍼레이스

달라진 규정 '타이어 성능' 변수
타이어社 장의 경쟁...금호 완승
주관사 채널A서 매 경기 생중계



2018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캐딜락 6000클래스'에서 엑스타레이싱의 이데 유지 선수가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F1 드라이버 출신의 경기 운영 능력과 관록이 빛난 승리였다.

2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1랩=4.346km, 21랩)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에서 엑스타레이싱팀(감독 김진표)의 이데 유지는 41분51초455의 기록으로 포디엄(사상대) 상단에 올랐다.

올 시즌 '캐딜락 6000클래스'는 세 번의 예선과 결승을 4분의 타이어로 교체없이 치르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만큼 드라이버의 경기 운영 능력과 타이어의 내구성도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까지는 12분의 타이어로 연습과 예선, 결승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예선용 타이어와 결승용 타이어를 따로 준비해 기록 위주로 예선을 치를 수 있었다. 그래서 경기 전략은 상대적으로 단순했고, 드라이빙 스킬이 거친 선수와 부드러운 선수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예선에서 사용한 타이어로 결승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전일본 F3 챔피언십, 프랑스 F3 챔피언십, 포뮬러 니폰, 슈퍼 GT, F1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데 유지 선수처럼 타이어 마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경기를 치르는 능력을 갖춘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타이어의 성능(내구성)도 중요한 변수가 됐다. 슈퍼6000클래스에서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가 경쟁하고 있는데 개막전에서는 금호



2018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 캐딜락 6000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데 유지(가운데)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CJ슈퍼레이스

타이어를 장착한 엑스타레이싱과 B&M 모터스포츠팀이 1,2,3위를 휩쓸며 완승을 거뒀다.

이데 유지 선수는 "매우 기쁜 날이다. 오늘 경기가 매우 치열했는데, 우승하기 위해 집중했다. 팀 동료와 팬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 시즌 캐딜락 6000클래스의 판도 변화를 이끌 북병으로는 B&M팀(감독 이정웅)이 떠올랐다. 제일제당에서 B&M으로 팀을 옮긴 오일기 선수는 이적 후 참가한 첫 경기에서 42분01초919의 기록으로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모터스포츠는 이적하면 새로운 머신에 적응하고 감독이나 기계니과의 호흡도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에 팀을 옮긴 선수가 개막전에서 포디엄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오일기 선수는 2위에 오르며 국내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의 관록을 입증했다.

한편 이번 2018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종합평점채널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된다. 주관방송사로 참여한 채널A는 캐딜락 6000 클래스 결승전을 매 라운드 생중계할 예정이다. 슈퍼레이스 2라운드는 오는 5월4~6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다.

용인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첫 선 'BMW M클래스'...현재복, 폴투피니시

(예선·결선 모두 1위)

450마력의 'M4' 원메이크 레이스
현재복 결선 27분46초690 사상대

올 시즌 신설된 BMW M클래스가 역사적인 첫 경기를 치렀다.

BMW M클래스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가 공인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정식 클래스로 BMW의 슈퍼카인 M4 단일 차종으로 경주한다. 전 세계에서 BMW 원메이크 레이스가 정식경기로 열린 것은 이번 한국 슈퍼레이스가 최초다.

대회 차량인 BMW M4 쿠페는 45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고성능 차량(제로백 4.0 초, 차량 가격 1억1140만원)으로 '캐딜락 6000 클래스'(436마력) 못지않은 역동적인 레이스를 펼쳐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BMW코리아는 경기장 내에 별도의 BMW 파빌리온(라운지)을 설치해 M카를 전시, 관람객들이 직접 차량에 앉아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복, 첫 대회 폴투피니시 우승
8개 팀 13명의 선수가 참가한 첫 대회 우승



BMW M클래스 첫 대회 우승의 역사를 쓴 현재복 선수(왼쪽에서 세 번째)와 BMW 그룹 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포디엄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BMW코리아

은 아마추어 모터레이싱팀 MSS의 현재복이 차지했다. 현재복은 2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1랩=4.346km)에서 열린 'BMW M클래스' 디라운드 결승(12랩)에서 27분46초690의 기록으로 첫 포디엄(사상대)의 주인

공이 됐다. 전날 예선에서 1위를 했던 현재복은 결승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 2위를 1초216초로 따돌리고 폴투피니시(예선과 결승 모두 1위)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현재복 선수는 "오늘이 마침 아들의 생일인데 우승하게 되어 더 기쁘다. M4 차량이 워낙 고성능 모델이라 코너링에서의 드라이빙 스킬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 M클래스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장을 찾아 직접 시상한 BMW 그룹 코리아 김효준 대표이사 회장은 "BMW 고성능 M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친근하게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 원성열 기자

경제

17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기아차, 업사이클 캠핑 RV 오너 140팀 모여라

기아자동차가 5월 충북 제천 평산캠핑장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업사이클 오토캠핑(사진)' 참가 고객 140팀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을 결합한 합성어 업사이클(Up cycle)을 테마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특색이다. 단순한 오토캠핑 체험을 뛰어넘어 고객들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친환경 업사이클 오토캠핑'은 1차(5월 19~20일), 2차(5월 26~27일) 등 각 70팀씩 총 2회(팀 당 최대 4명 동반)에 걸쳐 진행된다. 기아자동차는 참석자 전원에게 1박2일간의 오토캠핑 장소, 바비큐용 고기, 파자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캠핑용품 교환하기, 요리 경연대회, 쓰레기 배출 줄이기, 폐자재 활용 물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아차 RV 보유고객 또는 4월 기아자동차 RV 출고고객 및 출고 대기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5월 3일까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www.5969.co.kr

5969치킨

대한민국 최초 최저가 후라이드 치킨의 대혁명!!

가격파괴 5969치킨

TAKE-OUT ₩ 5,900

국내 최저가 창업

눈으로 입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유통과정을 없애고 맛과 가격 비주얼로 승부 동종업계의 최고의 경쟁력

특전!

가맹비 NO! 홍보비 NO! 프랜차이즈 창업대출 1,000~5,000만원

It's real hot chicken and cool beer

5969치킨

100% 국내산 생육 백세미 70호 650g 이상

"고깃살이 바삭바삭한 후라이드치킨 한마리"

풀깃과 바삭바삭 동집튀김

찰만하고 고소단백 동집볶음

화끈하고 매콤한 불맛 얼큰짜장탕

부드럽고 고소한 육수 맛 나가사끼 찜통

고소하고 달콤한 양념치킨

국물맛이 시원한 어묵탕

탱글소면과 풀깃 골뱅이무침

부드럽게 바삭 새우튀김

매콤하게 오도독 국물닭발

매콤달콤 호로록 국물떡볶이

그릴워 풀깃 닭백 모듬소세지

바삭해서 더 맛있는 모듬감자튀김

업종변경 대환영 / 신규창업 대환영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 전국지사 및 가맹점모집

상담문의 ☎ 1833-5951